

가족의 누적위험요인이 영아기 발달에 미치는 영향 :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매개로*

The Effects of Cumulative Family Risk Factors on Infants' Development :
The Mediation of Mothers' Parenting*

장영은(Young Eun Chang)¹⁾

권윤정(Yun Jeong Kwon)²⁾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aths from the cumulative risk factors to infant's development at 24 months of age via the mediation of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The data consisted of 3 year's worth of data harvested from 1802 families participating in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The results revealed that cumulative family risk factors tended to stay in the family in relatively stable ways. Early risk factors significantly predicted later risk factors. Cumulative risk factors we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parenting styles of mothers, which in turn, significantly predicted the development of the infants concerned. Statistical tests supported the notion that mothers' parenting behavior is the mediator of the relation between family risk factors and infant's developmental outcomes.

Keywords : 위험요인(risk factors), 양육행동(parenting behavior), 영아발달(infant development).

* 본 연구는 2012년도 중앙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본 논문은 2013년도 한국아동학회 춘계 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임.

¹⁾ 중앙대학교 가족복지학과 부교수

²⁾ 중앙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석사과정

Corresponding Author : Young Eun Chang, Dept. of Family Welfare, Chung-Ang University, 84 Heukseok-ro, Dongjak-gu, Seoul 156-756, Korea
E-mail : yechang@cau.ac.kr

© Copyright 2014, The Korean Society of Child Studies. All Rights Reserved.

I. 서론

생애 초기 여러 위험요인에 노출된 영아의 경우 이후 발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많다. 이는 생애 초기 경험이 가지는 중요성과 가족 내 위험요인이라는 것이 짧은 시간에 쉽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아동발달에 대한 위험요인의 영향력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위험요인에 많이 노출될 아동은 결국 빈곤, 차별, 그리고 발달에 불리한 환경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Duncan & Brooks-Gunn, 1997). 다시 말하면, 아동의 발달을 둘러싼 위험요인이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오기보다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들이 서로 연결고리로 연결되어 누적된 형태로 아동의 삶 속에 위치할 잠재성이 크다. 위험요인의 영향력에 대한 종단적 연구를 실시한 연구자들은 아동들이 생애 초기에 가족 내 누적된 위험요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이후 영유아기 사회정서적 발달은 물론이고, 유치원 및 학교 적응에 부정적인 결과를 보일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밝혀왔다(Burchinal, Roberts, Zeisel, Hennon, & Hooper, 2006; Mistry, Benner, Biesanz, Clake, & Howes, 2010; Ryan, Fauth, & Brooks-Gunn, 2006; West, Denton, & Germino-Hausken, 2000).

아동의 발달을 예측하는 누적위험요인의 개념은 Rutter(1979)에 의해 소개되었는데, 그에 따르면, 발달적 결과는 위기요인에 대한 개인적 반응의 산물이며, 부정적인 경험은 부정적인 결과로, 긍정적인 경험은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아동을 둘러싼 가족과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위험요인들이 누적되는 경우, 어떠한 개별적 위험요소의 영향력보다도 더 큰 발달적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Chung과

Kim(2011) 역시 다른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개별적 위험요인이 일정한 발달적 결과에 미치는 일원적 관계를 밝히는 것에서 벗어나, 개인을 둘러싼 생태학적 환경에 수준별로 존재하는 위험요인들 간의 집합적이고 다원적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아쉽게도 국내연구는 개별적 위험요인과 청소년 문제 간의 관계를 살피는 연구가 주를 이루어왔고(Chung, 2009; Han & Doh, 2008; Kim, 2007; Kim, 2006), 일부 연구만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Ju, 2008; Kim, 2012; Sung & Seol, 2012). 하지만 한 가족이 경험하는 위기요인은 시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경향이 있고, 발달 주기 상에 위기에 노출되는 시기에 따라 그 영향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Mistry et al., 2010), 청소년 시기 이전, 되도록이면 자녀 성장의 초기에 존재하는 위험요인의 영향력을 살필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출생과 동시에 경험하게 되는 생애 초기 다양한 가족 내 위험요인들이 누적되어 영아기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다원적 위험요인과 자녀발달 사이의 경로에 존재하는 어머니 양육행동의 중요성 또한 조명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자녀 발달에 영향을 줄 것으로 간주되는 다양한 위험요인들 중에서 가계소득수준, 빈곤 여부, 어머니 학력, 계획된 임신여부, 어머니 우울,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어머니 일상적 스트레스, 그리고 부부갈등이라는 8개 요인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측면의 위험요인으로 위험지표를 구성하는 것은 Deater-Deckard, Dodge, Bates와 Pettit(1998)이 위험지표를 구성함에 있어 자녀 개인의 특성, 부모의 사회문화적 배경, 양육 및 보육환경, 그리고 또래 관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요소들

고려하는 것이 위험지표가 가지는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주장에 기초하였다. 특히 Deater-Deckard 등(1998)은 이전 연구들이 사회경제적 지표만을 포함하던 것에서 벗어나 부모의 의학적 건강상태, 10대 임신 여부, 계획된 임신 여부 등을 자녀의 행동적 결과를 예측하는 위험요인으로 포함시킨 바 있다. 이후 Rouh, Parker, Garfinkel, Perry와 Andrew(2003)은 생물학적, 사회적, 공동체적 위험요인이 헤드스타트 아동의 읽기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는 다차원 접근을 시도하여, 위험지표 구성에 다양한 수준의 요인을 포함하는 것의 중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가계소득수준, 빈곤, 어머니 학력은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이에 따른 양육 및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피고자 포함되었다. 경제적 어려움과 아동 발달 간의 관계에서 아동발달을 강하게 예측하는 것은 빈곤 여부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빈곤에서 파생되는 여러 맥락적 변인들이라는 선행연구 결과(Duncan & Brooks-Gunn, 1997)를 볼 때, 소득, 학력, 빈곤여부 등은 그 자체로서의 영향력 검증에 위한 변인으로서 뿐 아니라, 다른 위험요인을 선택하는 구심점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유치원 교사들은 빈곤 가족의 자녀들을 다른 낮은 위기수준을 경험하는 가족의 자녀에 비해 사회성이 낮고 공격적인 것으로 보고하였으며(Ryan, Fauth, & Brooks-Gunn, 2006), 최근 연구에서는 빈곤이 부모의 뇌구조와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쳐 영아기 자녀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의학적으로 밝혀지기도 하였다(Perkins, Finegood, & Swain, 2013).

계획된 임신여부는 선행연구에서 임신의 계획성 여부 또는 아기를 가지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가 이후 자녀 출생 후 영아와 부모의

상호작용의 질과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과 관련 된다고 보고하였기에(NICHHD, 1999),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아기를 갖는 것에 대해 희망한 바가 없었다면 이후 자녀양육행동과 아동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위험요인으로 포함하였다. 뿐만 아니라 계획되지 않은 임신은 임신 초기에 알코올, 흡연, 약물 등 태아 위해요인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여 신생아 건강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 되므로(Moon et al., 2003), 산전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위험요인에 포함시킨 연구(Rouh et al., 2003)를 바탕으로 임신 계획여부를 위험요인으로 포함하고자 한다. 어머니의 우울 역시 많은 선행연구에서 자녀와의 정서적 거리감 및 부정적 상호작용을 예측하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비일관적인 양육 태도를 보여 자녀의 부정적인 발달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Fendrich, Wamer, & Weissman, 1990; Field, Healy, Goldstein, & Guthertz, 1990; Lee & Chang, 2009; Lovejoy, Graczyk, O'Hare, & Neuman, 2000; Park, Doh, & Chung, 1996). 특히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어머니가 우울한 성향을 보일 때, 더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누적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수록 영아발달이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Lyons-Ruth, Connell, Grunebaum, & Botein, 1990).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는 긍정적인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민감한 양육행동을 저해하고 자녀의 사회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Crnic & Low, 2002; McLoyd, 1990; Park & Chang, 2004; Shin & Chung, 1998). Kim과 Doh(2004)에 따르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민감한 양육행동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유아기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가족

생활사건을 비롯한 가족 스트레스 요인들 역시 가족원들의 심리적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며,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포함하여, 부모가 경험하는 계속되는 스트레스는 영아기 자녀의 문제행동을 비롯한 발달적 문제와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예측한다(Crnic, Gaze, & Hoffman, 2005). 부부 간의 갈등은 부부관계를 위협할 수 있고 자녀의 행동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영향력은 부모-자녀 관계에 부모의 분노가 투사됨으로 인해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방해하게 되고, 그 결과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Cummings, Davies, & Campbell, 2001; Kitzmann, 2000). 우리나라 연구결과에 따르면 어머니가 경험하는 부부갈등은 양육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유아의 부정적인 정서적 발달 역시 예측하였다(Kim & Sung, 2013).

또한 본 연구에서는 위험요인이 영아발달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 뿐 아니라,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이고 중재적 경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는 다양한 가족 내 위험요인은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며, 그 중에서도 어머니가 받는 부정적인 영향력은 양육행동을 통해 자녀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에 근거하였다.

미국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최근 진행된 Mistry 등(2010)의 연구에서 어머니 결혼상태, 어머니 실업, 가계소득, 빈곤이하 소득, 복지수당 대상, 어머니 우울 등으로 구성된 위험요인이 어머니의 온정적인 양육과 언어적 자극이라는 변인을 매개로 하여 학령전기 아동의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파악하였다. 즉, 이들은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기의 중요성을 검증하기 위해 영아기와 유아기 위험요인을 모델에 포함시켰으나, 노출시기에 따른

위험요인의 영향력의 유의한 차이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족, 사회적 위험요인은 시간에 따라 급변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위험요인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종단적 접근은 필요하다고 논의하였다(Mistry et al.,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민감한 양육행동이 초기 언어발달 및 정서사회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시기이자(Santrok, 2012), 이후 후속연구에서 종단적으로 가족 내 위험요인이 자녀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한 잠정적 출발점으로서 만 2세를 연구대상 연령대로 선정하였다.

아동의 발달의 예측하는 여러 위험요인들-어머니의 낮은 학력이나 빈곤 등-의 영향력은 여러 통계적 방법을 통해 연구되어 왔다. Burchinal, Roberts, Hooper와 Zeisel(2000)에 따르면 그 방법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국내 연구에서도 널리 쓰이는 방법으로서, 중다회귀분석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각각의 위험요인을 회귀분석모델에 포함하여 각 변인의 변화에 따른 아동의 발달적 결과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중다회귀분석을 통한 위험요인 연구방법은 개별요인의 영향력을 비교할 수 있으나, 종단적 분석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한계를 가진다. 두 번째 방법은 개별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요인점수를 계산하여 이 점수를 예측변인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요인점수방식은 발달적 궤적에 대한 예측력이 필요할 때 유용하다는 특징이 있다. 마지막 방법은 위험지표(risk-index)방식으로 아동의 주변 환경에 존재하는 위험요인의 수로써 아동의 발달적 결과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분석방법이 간소하다는 장점이 있고 다양한 종류의 위험관련 변인이 자료 내에 존재할 때 이를 하나의 점수로 변환하는 유용한 접근법이다(Burchinal et al.,

2000). 국내 연구들은 위험요인을 회귀분석에 동시에 포함시켜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는 연구(Cha, Yang, & Chung, 2006; Park, 1998)나 구조방정식모델링 기법을 통해 위험요인이라는 잠재변인을 구성하는 방법(Kim, 2007), 또는 가족 내 위험요인을 하나의 척도를 이용해 측정하여 예측변수로 사용하는 방법(Han & Doh, 2008) 등이 다양하게 적용되어 왔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대규모 데이터를 바탕으로 위험지표를 구성하여 영유아기의 발달을 예측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마지막 방법을 이용하여 가족 내에 존재하는 위험요인의 수로 위험지표를 구성하여 만 2세 유아의 발달을 예측하고자 한다.

아동을 둘러싼 가족 및 사회적 위험요인 수의 합계로서 아동발달의 결과를 예측하는 다중위험모델을 제안한 Rutter(1979)는 그의 연구에서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원의 수, 아버지 범 죄여부, 어머니 정신병력, 부부불화, 그리고 부모의 경찰수감 여부라는 6개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저소득층 자녀의 정신병리적 문제 발생을 예측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6점 만점에서 1-3점의 위험점수는 위험요인이 존재하지 않는 0점에 비교하여 유의하게 자녀의 정신병리문제를 예측하지 않았으나, 4점 이상이 되는 가정의 아동들은 0점에 해당되는 아동에 비해 7배나 많은 부적응 발현율을 보였다. 이후 Sameroff, Seifer, Barocas, Zax와 Greenspan(1987)은 열 가지의 위험요인을 선정하여 위험지표 점수로 인지 및 사회정서 발달을 예측한 바 있다. 그 열 가지 위험요인으로는 어머니 만성정신병력, 어머니 불안, 양육기대, 어머니 상호작용 행동, 어머니 교육수준, 대표가구의 직업지위, 소수인종여부, 가족사회지지, 생활스트레스, 그리고 가족크기가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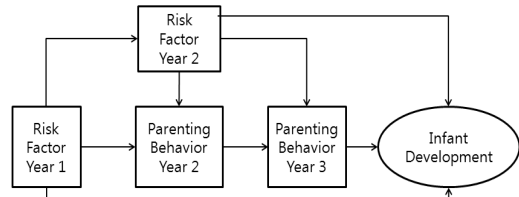
특히나 Sameroff, Seifer, Zax와 Barocas(1987)와 Sameroff, Seifer, Baldwin와 Baldwin(1993)은 다중위험지표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소득, 가족 크기 등의 양적인 지표 뿐 아니라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같은 질적인 변인들도 포함하였고, 가족관련변인(부모의 정신병력, 양육행동, 양육태도)과 더불어 사회적 위험요인(저소득, 어머니 교육수준, 한부모 가족, 가족크기)들을 동시에 포괄하여 이후 다중위험지표 연구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최근 연구에는 다중위험요인 구성에 있어 빈곤, 한부모 가족, 어머니 교육, 가구크기, 생활스트레스, 어머니 우울(Burchinal, Roberts, Zeisel, Hennon, & Hooper, 2006; Burchinal, Roberts, Hooper, & Zeisel, 2000; Gutman, Sameroff, & Cole., 2003; Lengua, Bush, Long, Trancik, & Kovacs, 2008; Mistry et al., 2010; Rouse & Fantuzzo, 2009)을 공통적인 요인으로 하고, 그 외에 가정환경의 우수성(Burchinal et al, 2000), 양육기대 및 어머니 불안(Gutman, Sameroff, & Cole, 2003), 자녀기질, 부부갈등, 보육요인, 또래관계(Deater-Deckard et al., 1998), 또는 조산여부, 출생 시 몸무게, 산전관리(Rouh et al., 2003)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위험지표를 구성하여 영유아기 발달부터 학령기 학교 적응에 이르는 다양한 발달적 결과를 예측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는 위험지표를 구성한 연구가 많지 않으나, 최근 Chung과 Kim(2011)이 개인, 가족, 그리고 학교 수준으로 구분된 위험요인을 구성한 바 있다. 개인수준의 위험요인으로 아동·청소년의 공격성과 우울 및 불안, 가족영역에 해당하는 위험요인은 아동학대와 부모의 우울, 그리고 학교영역에서의 위험요인은 역기능적 또래관계와 부정적 학교환경을 사용하여 다차원적인 위험요인지표를 구성하였다.

이상에서 언급한 연구들과 다른 많은 위험요인 관련 연구들은 위험요인은 하나의 요인으로서 각각 영향을 미칠 때보다 그 요인들이 누적 또는 축적되었을 때, 그 총합(sum)이 어떤 개별 요인보다 아동발달의 공고한 예측요인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Sameroff 등(1987)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지위는 그 자체로서 스트레스, 빈곤, 부적절한 양육, 교육적 자극의 부재, 사회적 지지의 부족 등을 포괄하고 있어 아동발달을 일관되게 예측하는 변인으로서 연구자들이 선호하는 변인이긴 하지만, 이는 가족 및 사회의 구체적 위험변인을 약식으로 대표하는 변인일 뿐이다. 즉,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위험변인을 연구에 포함시킬 때, 다중위험지표의 예측은 보다 강화될 것이라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고찰과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아동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1차년도와 2차년도의 가계소득수준, 빈곤 여부, 어머니 학력, 계획된 임신여부, 어머니 우울,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어머니 일상적 스트레스, 그리고 부부갈등 등 8개의 위험요인으로 위험지표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생애 초기 가족 내 누적위험요인이 어머니 양육행동을 통해 24개월 영아기 발달을 예측하는 다음의 연구가설과 개념적 모델(Figure 1)을 구성하였다.

- <연구가설 1> 출생 및 생후 1년 간 가족 내 존재하는 위험요인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줄 것이다.
- <연구가설 2> 생후 1년과 2년의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만 2세 영아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줄 것이다.
- <연구가설 3> 가족 내 위험요인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매개로 영아 발달에 영향을 줄 것이다.



<Figure 1> The conceptual model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한국아동패널에 참여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종단적으로 수집된 자료 중 1, 2, 3차년도의 데이터에 참여한 1,802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1차년도와 2차년도 자료에서 위험요인을 구성하고, 2차년도와 3차년도의 어머니 양육행동, 그리고 3차년도 영아발달자료를 사용하였다. 3차년도 연구에 참여한 1,802 가구의 자녀 중 51%가 남아, 49%가 여아였으며, 최소월령은 23개월, 최대월령은 31개월로 조사 당시 자녀 월령은 평균 25.75개월 (SD = 1.367)이었다.

2. 연구도구

1) 다중위험지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위험지표는 아래 설명된 8개의 위험변인을 사용하여 위험범주에 속하는 경우 위험요인 개수를 1개로 환산하여 0~8점의 범주를 가진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한 가족이 8개의 위험변인 중 가계소득수준, 어머니 우울, 그리고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라는 3개의 변인에서 위험기준선을 넘을 경우, 그 가족에

게 부과되는 다중위기지표점수는 3점이 된다.

위험지표의 구성을 위해 1차년도와 2차년도에 측정된 가계소득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어머니 학력, 계획된 임신여부, 어머니 우울,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어머니 일상적 스트레스, 그리고 부부갈등의 8개의 변인을 사용하였다. 이 변인들에 대한 응답은 모두 어머니가 하였으며 계획된 임신여부만 1차년도에 1회 질문하였고, 나머지 요인들은 모두 1차년도와 2차년도에 걸쳐 반복 측정되었다. 이분척도나 기준에 위험군을 구별하는 점수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척도에서는 위험요인 분포의 사분위수인 25 퍼센타일을 기준으로 위험군으로 구별하는 Sameroff 등(1987)의 방식을 적용하였다. 위험요인을 다루는 해외연구에 자주 포함되는 ‘결혼상태 = 미혼’, 아버지 실업여부 등은 본 연구데이터에서 그 비율이 매우 낮으므로 위험요인 기준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가계소득수준은 월평균가족소득을 사용하였으며, 소득수준이 4사분위(하위 25퍼센타일) 이하인 경우 위험요인으로 분류하였다. 빈곤여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위험요인으로 분류하였다. 1차년도에는 3.5%, 2차년도에는 4.7%의 가족이 이에 해당되었다. 아동패널 자료 내에 기초생활수급자의 분포가 매우 낮고,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하여도 5% 미만에 그친다. 우리나라 차상위계층은 OECD가 정하는 상대적 빈곤선인 중위소득 50%에 미치지 못하는 최저생계비의 120%를 적용하여 분류되므로 빈곤가족으로의 분류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차상위계층까지를 빈곤위험요인 해당 가족으로 선정하기로 하였다. 어머니 학력은 고졸 이하인 경우 위험요인으로 분류되었고, 그 분포는 1차년도 31.2%, 2차년도에는 30.6%였다. 자녀임신이 바라거나

계획하지 않았던 경우 위험요인으로 분류하였고, 1차년도에 26.6%가 부모 양쪽 모두 계획하거나 의도하지 않았던 임신을 한 것으로 밝혀졌고 2차년도에도 같은 자료가 사용되었다.

어머니의 우울은 Kessler 우울척도인 K6(Kessler, Andrew, Cople, Hiripi, Mroczek, Normand, Walters, & Zaslavsky, 2002)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미국 보건면접조사(US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NHIS)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신 건강을 측정하기 위하여 Kessler 등(2002)에 의해 간편형으로 제작된 도구이다. 1점에서 5점까지의 리커트척도로 구성된 총 6개 문항의 이 도구의 가능한 점수범위는 6~30점이며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6점~13점은 정상수준, 14점~18점은 경도/중등도(mild/moderate)우울, 19점~30점은 중도(severe)우울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는 14점 이상을 얻은 경우 위험요인으로 분류하였다. 1차년도에는 24.6%, 2차년도에는 24.7%의 어머니가 이에 해당되었다. 우울 척도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alpha는 1차년도에 .910, 2차년도에 .914였다.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는 Kim과 Kang(1997)이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Abidin(1983, 1990, 1995)의 Parenting Stress Index(PSI), Crnic과 Greenberg(1990)의 Parenting Daily Hassles(PDH), Mann과 Thornberg(1987)의 Maternal Guilt Scale(MGS) 등 세 해외척도를 기초로 우리나라 양육현황에 맞게 개발한 도구이다. 한국아동패널에서는 Kim과 Kang(1997)이 한국형으로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 총 32문항 중 연구목적에 해당하는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만을 발췌하였다. 이 영역에 해당하는 12개 문항 중 2007년도 예비조사에서 문항 진술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 1개 문항과 영아를 둔 어머니에게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된 1개 문항을 제외하여 한국 아동패널의 양육스트레스는 총 10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1점에서 5점 리커트척도 10문항으로 구성된 이 척도의 높은 점수는 어머니의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의미한다. 위험요인지표 구성을 위해 점수분포에서 1사분위(상위 25퍼센타일)에 가까운 점수를 기준으로(1차년도 32점 이상, 2차년도 33점 이상), 이 기준 이상일 경우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었다. Cronbach's alpha는 1차년도 .840, 2차년도 .850으로 나타났다.

가족생활사건은 McCubbin, Patterson과 Wilson (1982)이 개발한 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FILE)을 변안한 척도 중 하위영역인 '규범적 생활사건' 영역의 16개 문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지난 1년간 가족에게 생활규범상 수용 가능한 사건, 즉 가족원의 성장이나 경제적 어려움의 경험 등의 16개의 사건이 일어났는지 여부를 묻고, 일어난 경우 1점, 일어나지 않은 경우 0점으로 코딩하여 총점을 산출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유발 사건을 더 많이 경험한 것을 의미한다.

부부갈등은 Chung(2004)이 Markman, Stanley와 Blumberg(2001)의 부부갈등척도를 수정·변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Chung(2004)의 척도는 6점 리커트 척도 8개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나,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이를 5점 리커트척도로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risk threshold of risk factor variables

Risk factors		Year 1(%)	Year 2(%)	Risk threshold
Poverty	Basic living recipient	1.2	1.2	Basic living recipients + Near poverty
	Near poverty	2.7	4.1	
	N/A	96.1	94.7	
Mother education	Middle	.6	.6	High school or lower
	High	30.5	30.6	
	College	63.2	64.4	
	Graduate	5.6	5.0	
Planned pregnancy	Mother planned	2.3	2.3	Both not planned
	Father planned	7.4	7.4	
	Both planned	72.4	72.4	
	Both not planned	17.9	17.9	
	M(SD)			
	Year 1	Year 2		
Family income	319.33(151.49)	337.36(267.25)		25% lowest
Mother depression	11.68(4.22)	11.53(4.21)		Mild or severe(≥ 14)
Parenting stress	27.38(6.23)	27.28(6.40)		25% highest
Life stress	4.31(2.74)	4.59(2.94)		25% highest
Marital conflict	15.92(6.15)	16.10(6.13)		25% highest

변환하였다. 총 8개 문항으로 구성된 이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지각하는 부부 간의 갈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부갈등 역시 상위 25 퍼센타일에 근접한 점수를 기준으로(1차년도 20점 이상, 2차년도 21점 이상) 위험군을 분류하였다. Cronbach's alpha는 1차년도 .906, 2차년도 .908로서 만족스러운 신뢰도를 나타냈다. 다음의 Table 1은 위험요인지표에 포함된 변인의 일반적 특성과 위험요인 분류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 어머니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2차년도와 3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Bornstein 등(1996)의 The Parental Style Questionnaire(PSQ)의 하위 영역 중 사회적 양육유형(social interaction) 문항들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래 PSQ는 사회적 양육유형은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해당 연령대 자녀에게 적용되지 않는 3개 문항을 제외한 6개의 문항이 사용되었다. 5점 리커트척도로서 가능한 점수범위는 6~3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온정적, 반응적으로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3) 영아발달

생후 24개월 무렵의 영아발달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검사도구는 Korean Age and Stage Questionnaire(K-ASQ; Huh, Squires, Lee, & Lee, 2006)로서 이는 1980년대 미국의 Oregon 대학에서 개발된 ASQ 2판을 한국 실정에 맞추어 표준화한 검사이다. 이 검사는 4개월에서 60개월의 영유아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발달선별검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검사의 하위영역 중 의사소통, 문제해결, 그리고 개인-사회성 영역의 3개 영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K-ASQ는 각

영역별 6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에 대해 어머니가 '예(영유아가 행동을 수행할 때)', '가끔(행동을 보이기 시작할 때)', '아니오(아직 행동을 수행하지 못할 때)' 세 가지 중 하나로 응답하는 구조이다. '예'는 10점, '가끔'은 5점, '아니오'는 0점으로 점수화하여 영역별 점수 범위는 0점~6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영아의 발달단계에서 기대되는 각 영역의 발달적 행동을 성취했음을 의미한다.

3. 연구절차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 1차년도 조사를 시작으로 2012년도 5차년도 조사까지 완료되었으며, 매해 아동, 어머니, 가구 특성 등 다양한 변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06년도 기준 연간 분만건수가 500건 이상인 표본 의료기관에서 2008년 4월부터 7월 사이에 출생한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가구와 조사 참여를 거부한 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패널 참여의사가 있는 예비표본 2,562가구를 모집하고 이 중 2,150명의 신생아 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1차년도에는 2,150 가구, 2차년도에는 1,904가구, 그리고 3차년도에는 1,802가구가 연구에 참여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분석 방법으로는 AMOS 20.0을 이용한 구조방정식모델링(Structural Equation Modeling) 기법을 선택하였다. 그 외에 SPSS 20.0을 사용하여 분석변인의 기술적 통계분석과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분석

1. 다중위기지표의 분포

위험요인을 구성하는 8개의 요인과 어머니 양육스타일, 그리고 영아의 발달을 구성하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분석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대부분 $p < .001$ 이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나타냈다. 위험지표는 총 8개의 변인을 이용하여, 위험범주에 속하는 경우 위험요인 개수를 1개로 환산하여 0-8개의 범주를 가진 변인으로 구성하였는데, 위험요인의 점수분포는 다음 Table

3에 제시되어 있다. 시간에 따른 위험요인의 분포가 변화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1차년도와 2차년도의 위험요인 수준을 비교한 결과, 1차년도와 2차년도에 걸쳐 가족내 존재하는 위험요인의 개수가 변화하지 않은 가족이 전체 가족의 414%를 차지하였다. 이에 위험요인이 하나 증가하거나(19.2%) 감소한 경우(18.2%)를 합하면 78.7%로서 가족에 존재하는 위험요인의 총합은 크게 변화하지 않고 안정적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사이에 8개의 위험요인 중 3개 이상으로 증감의 변화를 보인 가족은 전체의 1.8%에 그쳤다. 1차년도 위험요인과 2차년도 위험요인의 상관관계 역시 $r = .68$ 로서 두 변인 간 연관성이 높았다.

<Table 2> Zero-order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the analytical variables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1. Monthly income_Y1	.50***	-.06***	-.13***	.33***	.35***	-.04	-.04	-.08**	-.13***	-.09***	-.13***	-.10***	-.16***	-.09***	-.07**	.07**	.09***	.07**	.03	-.02
2. Monthly income_Y2	1	-.02	-.10***	.20***	.24***	.01	.01	-.04	-.10***	-.03	-.06**	-.07**	-.14***	-.04	-.03	.01	.03	.02	.01	.01
3. Poverty_Y1		1	.22***	-.07**	-.05*	.04	.04	.04	.05*	.01	.01	.02	.07**	.00	.00	.01	-.02	.00	.00	.02
4. Poverty_Y2			1	-.16***	-.16***	.02	.02	.04	.05*	.02	.02	.04	.06*	.03	.04	-.03	-.04	-.01	-.00	.02
5. Mother edu_Y1				1	.86***	-.06**	-.06**	-.07**	-.11***	-.10***	-.12***	-.11***	-.15***	-.10***	-.10***	.11***	.09***	.08***	.05*	-.03
6. Mother edu_Y2					1	-.05	-.05	-.04	-.09***	-.10***	-.12***	-.09***	-.13***	-.11***	-.10***	.11***	.10***	.09***	.07*	-.02
7. Planned pregnancy_Y1						1	1.00	.08**	.04	.09***	.10***	.05*	.08**	.11***	.09***	-.06**	-.03	-.01	.01	.01
8. Planned pregnancy_Y2							1	.08**	.04	.09***	.10***	.05*	.08**	.11***	.09***	-.06**	-.03	-.01	.01	.01
9. Depression_Y1								1	.51***	.52***	.41***	.26***	.22***	.51***	.35***	-.27	-.25	-.08	-.05	-.02
10. Depression_Y2									1	.36	.51***	.23***	.32***	.37***	.49***	-.34***	-.28***	-.10**	-.05*	-.06*
11. Parenting stress_Y1										1	.63***	.25***	.21***	.43***	.29***	-.38***	-.31***	-.13***	-.06*	-.04
12. Parenting stress_Y2											1	.22***	.28***	.34***	.41***	-.48***	-.36***	-.14***	-.07*	-.05*
13. Life event_Y1												1	.48***	.26***	.20***	-.09***	-.12***	-.07***	.01*	-.01
14. Life event_Y2													1	.19***	.21***	-.09***	-.10***	-.01*	.01	-.02
15. Couple conflict_Y1														1	.68***	-.24***	-.22***	-.08**	-.04	-.01
16. Couple conflict_Y2															1	-.26***	-.22***	-.07***	-.03**	-.05
17. Parenting style_Y2																1	.54***	.11***	.05*	.03
18. Parenting style_Y3																	1	.13***	.08**	.06*
19. Communication dev.																		1	.39***	.28**
20. Problem solving dev.																			1	.38***
21. Personal-social dev.																				1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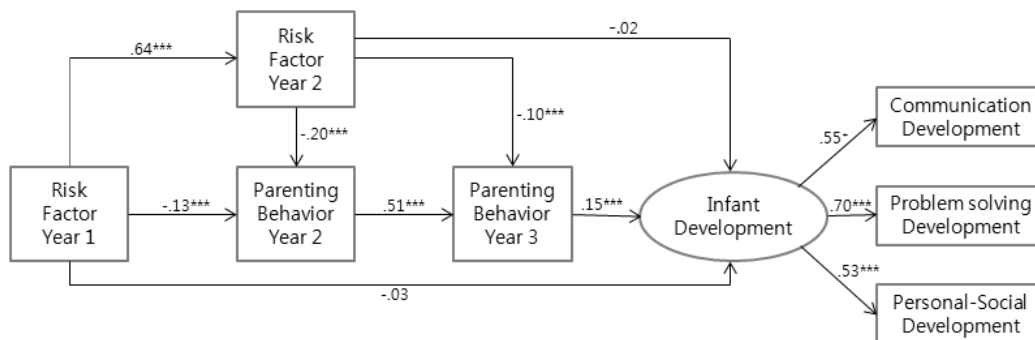
<Table 3> Frequencies of multiple risk index at Year 1 and Year 2 among study sample

Number of risk factors	Year 1		Year 2	
	n	%	n	%
0	494	23.8	573	26.9
1	568	27.3	572	26.9
2	415	20.0	397	18.6
3	304	14.6	274	12.9
4	169	8.1	185	8.7
5	92	4.4	79	3.7
6	27	1.3	38	1.8
7	8	.4	11	.5
8	1	.0	0	0
Valid total	2078	100.0	2129	100.0
Missing	72		21	
Total	2150		2150	

2. 연구모형의 적합성

연구가설 검증을 위해 개념적 모델에서 제시된 관계들을 구조방정식모델링 기법을 통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ure 2에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델이 주어진 자료에 적당하게

부합하는지를 나타내는 모델적합도 지수에 따르면 $\chi^2(df) = 81.79(11)$, $p < .001$, TLI = .928, CFI = .972, RMSEA = .055 로서 χ^2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다른 모델적합도 지수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구조방정식모델이 주어진 자료에 만족스럽게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2>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redicting infants' development at 24 months. Path coefficients are standardized. $\chi^2(df) = 81.79(11)$, $p < .001$, TLI = .928, CFI = .972, RMSEA = .055, +Constrained variable, *** $p < .001$.

3. 연구가설의 검증

앞서 제시된 연구가설의 검증을 위해 개념적 모델이 구성되었고, 이 모델을 구조방정식모델링 기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가 Figure 2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자녀 출생 초기에 가족 내에 존재하던 위험요인(Risk Factor Y1)은 이후 위험요인(Risk Factor Y2)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beta = .64, p < .001$). 이는 가족 내에 존재하는 위험요인들이 시간에 따라 크게 변화하기보다는 가족 내에 정체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위험요인은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스타일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는데, 1차년도 위험요인이 적은 경우 2차년도에 어머니의 양육스타일이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beta = -.13, p < .001$), 2차년도 위험요인 역시 2차년도와 3차년도 긍정적인 어머니 양육행동을 모두 부적 방향으로 예측하였다(2차년도 양육행동 $\beta = -.20, p < .001$; 3차년도 양육행동 $\beta = -.10, p < .001$). 결과적으로 가족 내 위험요인이 많을수록 어머니의 양

육행동이 부정적으로 나타나 가족 내 위험요인이 어머니 양육행동을 예측할 것이라는 연구가설 1은 지지되었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영아발달을 예측하는 경로의 유의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2차년도 어머니 양육행동은 3차년도 어머니 양육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beta = .51, p < .001$), 3차년도 어머니 양육행동은 3차년도 영아발달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beta = .15, p < .001$).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자녀 발달을 예측하리라는 연구가설 2가 지지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출생 당시와 그 이후 생후 1년 간 가족 내에 존재하는 위험요인이 다양할수록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영아의 문제해결, 의사소통, 사회성 등의 발달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 내 다양한 위험요인은 위험요인 → 어머니 양육행동 → 영아발달이라는 유의한 경로를 통하여 자녀 발달에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며, 이로써 위

<Table 4> Decomposition of standardized effects of risk factors and parenting behavior

Predictor	Dependent variable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Risk factor Y1	Risk factor Y2	.70*	.70*	-
	Parenting behavior Y2	-.29**	-.14*	-.15*
	Parenting behavior Y3	-.23**	-	-.23**
	Infant development	-.09*	-.04	-.05
Risk factor Y2	Parenting behavior Y2	-.21*	-.21*	-
	parenting behavior Y3	-.22**	-.11**	-.11**
	Infant development	-.05	-.02	-.03**
Parenting behavior Y2	Parenting behavior Y3	.52**	.52**	-
	Infant development	.08**	-	.08**
Parenting behavior Y3	Infant development	.14**	.14**	-

* $p < .05$. ** $p < .01$.

험요인과 영아발달 간에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매개적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가족 내 위험요인이 영아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부트스트래핑 기법을 통해 산출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에 대한 통계치는 Table 4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1차년도 위험요인은 2차년도 위험요인(표준화된 계수 = .70, $p < .05$), 어머니 양육스타일(표준화된 계수(2차년도) = -.29, $p < .01$, (3차년도) = -.23, $p < .01$) 그리고 영아의 발달(표준화된 계수 = -.09, $p < .05$)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총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년도 위험요인이 3차년도 영아발달에 어머니 양육행동을 통해 미치는 간접효과는 -.03 으로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행동도 역시 영아의 발달에 유의한 직, 간접효과를 가졌다. 2차년도 양육스타일이 3차년도 양육행동을 통해 영아발달을 예측하는 간접효과의 표준화된 계수값은 .08 ($p < .01$)로 유의했으며, 3차년도 양육스타일도 영아발달에 유의한 직접효과를 보였다 (표준화된 계수 = .14, $p < .01$). 즉, 가족 내 누적위험요인이 어머니 양육행동을 통해 영아발달을 예측할 것이라는 연구가설 역시 지지되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자녀가 매우 어릴 때 가족 내에 존재하는 위험요인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력이 결국 영아기 발달을 예측할 수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위험요인의 영향력을 살피기보다는 위험요인의 복잡성과 누

적정도, 다시 말해 다양한 위험요인에 어머니와 영아가 노출된 정도를 반영하는 다중위기지표를 이용하여 양육행동과 영아발달을 예측하였다. 연구문제의 검증을 위하여 한국아동패널조사에 참여하는 2,150가구의 종단데이터를 바탕으로 자녀 출생 시점부터 자녀가 약 24개월이 되는 기간 동안에 가족이 경험하는 위험요인의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해보면, 첫째, 자녀 출생 당시 가족 내에 누적되어 있던 위험요인은 1년 후에도 비교적 지속적으로 가족 내에 남아 있는 경향이 있었으며, 위험요인들은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 내에 누적된 위험요인이 많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부정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이러한 어머니의 온정 및 반응성과 같은 긍정적인 양육행동은 영아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 능력 및 사회성발달의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가족 내 위험요인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간접효과와 검증결과, 가족 내 위험요인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통해 영아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어머니가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행동의 특성이 유의한 매개변인으로 검증된 것은 영아를 둘러싼 환경에 존재하는 유해한 요소들이 자녀발달에 전달되는 하나의 경로가 구체화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종단적 자료 분석을 통해서 이전에 존재하는 위기로인은 이후 위험요인 및 어머니 양육행동을 예측하는 것으로 밝혀져서 생애 초기에 존재하는 위기로인의 장기적 영향력의 잠재성을 시사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위험요인에의 지속적 노출이 어머니의 언어적 민감성 및 온정을 통해 학령 전기 아동의 성취를 예측한 Mistry 등(2004)의 연구결과와 그 맥락을 함께

한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영아기라는 발달 초기에도 가족 내에 존재하는 위험요인은 발달적 결과를 예측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경제와 관련된 지표, 즉 가족수입, 빈곤 여부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학력, 우울, 스트레스, 부부관계 그리고 이 자녀와 관련된 과거의 임신 계획 여부 등 다양한 요인을 위험지표에 포함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빈곤 뿐 아니라 가족을 둘러싼 생태학적 환경의 여러 측면에 존재하는 영아발달에 불리한 조건들이 누적되었을 때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을 검증한다는 의의를 가지는 동시에, 이 위험요인 중 어떤 요인이 영아발달을 더 잘 예측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단점을 동시에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관계 분석이나 선행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유추해 볼 때 가족 내에 존재하는 위험요인은 가족의 경제적 수준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들은 생애 첫 1년간 경험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이후 발달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생애 초기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는 연구자들의 논의(Duncan, Yeung, Brooks-Gunn, & Smith, 1998; Duncan & Brooks-Gunn, 1997)를 지지한다. 또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발달적 결과를 예측하는 스트레스 요인은 대개 빈곤을 포함한 여러 가족관련 문제를 겪고 있는 경우 더욱 빈번히 발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Belsky, Woodworth, & Crnic, 1996), 다양한 위험변인의 종단적 축적에 관심을 두고 아동발달을 예측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제안을 만족시키는 연구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취약가족을 위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앞서 Lyons-Ruth 등(1990)은 가정방문형 가족지지서비스를 경험

한 빈곤가족의 경우 어머니의 우울이 영아발달 및 안정애착형성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의 크기를 감소시켰음을 밝혔다. 출산을 준비하거나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 중에서 다양한 위험요인에 노출된 취약가족을 위해서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어머니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한 지원, 자녀양육기에 들어선 부부의 관계 점검을 위한 상담, 그리고 민감하고 따뜻한 양육실제에 대한 부모교육과 양육스트레스 관리 등 자녀양육의 다면적인 차원을 다루는 교육 프로그램과 양육지원서비스를 개발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본 연구는 자녀 출생 당시부터 향후 만 2년간에 걸쳐 수집한 종단자료를 바탕으로 가족 내 누적된 위험요인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통해 자녀 발달을 예측하는 경로를 밝혔다. 점과 더불어 이전 연구에서 많이 다루지 못했던 생애 초기 종단자료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기존의 패널자료를 바탕으로 위험요인지표를 구성하였기에, 선행연구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위험요인을 탐색하여 자료를 수집한 연구에 비해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패널데이터의 성격 상 본 연구와 관련된 변인 중 일부가 심도 있게 측정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위험요인 중 하나인 양육스트레스의 경우를 보더라도 양육스트레스의 다면적 특성을 포괄하는 본래의 척도 중 '부모역할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라는 하나의 하위 영역만을 사용하여 양육스트레스의 개념을 대체하였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변인 역시 같은 예에 속한다. 즉, 연구자가 사전 계획 하에 연구에 필요한 변인을 가장 적합한 도구를 통해 측정하지 못하고, 사후적으로 기존의 자료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축소 또는 일부 생략된 형태의 도구로 측정된 변

인으로 인한 해석의 한계점을 본 연구는 가지고 있다.

기존의 데이터에 의존한 분석인 만큼 위험요인이 자녀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경로에 존재할 수 있는 매개변인을 선정하는 데에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후 어머니나 자녀의 자아탄력성, 가족의 건강성, 또는 어머니의 언어적 반응성 등 다양한 변인을 포함한 연구가 추후에 가능할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에는 포함되지 못한 아버지 관련 요인, 즉 아버지와 관련된 위험요인이나 아버지와 영아자녀 간의 상호작용 시간 및 성격 등 다양한 요인이 후속 연구에는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매개변인으로 선정하고, 그 역할을 진단하였으나, 양육행동을 조정변인으로 삼은 모델을 검증해볼 필요도 있다. 즉, 위험요인과 어머니 양육행동 간의 상호작용을 살피는 연구는 어머니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의 질이나 어머니의 바람직한 양육행동에 따라 위험요인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의 크기가 확대 또는 축소되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Mastern, Best와 Garnezy (1990)가 제안한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s)의 개념을 포함하는 연구가 될 것이다. Mastern 등 (1990)에 따르면, 보호요인이란 도전적이고 위협적인 주변 환경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성공적인 적응을 이끄는 데 기여하는 요인인데, 그 중 하나가 어머니의 온정적인 양육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Burchinal 등(2006)은 아동의 언어적, 사회적 능력, 어머니의 교육스타일, 전반적인 가정환경의 우수성, 그리고 보육의 질이 위험요인들과 상호작용하여 위험요인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조정변인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연구에서는 위험요인과 청소년 비행 간의 관계에서 가족친밀도의 조절효과

를 탐색한 연구가 있다(Kim, 2007). 하지만 영유아기에 가족위험요인의 영향력을 심화 또는 약화시키는 보호변인과의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후속 연구로 제안하는 바이다.

References

- Abidin, R. R. (1983). *Parenting Stress Index(PSI) manual*.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 Abidin, R.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PSI-SF)*.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 Abidin, R. R. (1995). *Parenting Stress Index(PSI) manual (3rd ed.)*.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 Belsky, J., Woodworth, S., & Crnic, K. (1996). Troubled family interaction during childhood.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8, 477-495.
- Bornstein, M. H., Tamis-LeMonda, C. S., Pascual, L., Haynes, M. O., Painter, K. M., Galperin, C. Z., & Pecheux, M. G. (1996). Ideas about parenting in Argentina,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9(2), 347-367.
- Burchinal, M. R., Roberts, J. E., Hooper, S., & Zeisel, S. A. (2000). Cumulative risk and early cognitive development: A comparison of statistical risk models. *Developmental Psychology*, 36(6), 793-807.
- Burchinal, M., Roberts, J. E., Zeisel, S. A., Hennon, E. A., & Hooper, S. (2006). Social risk and protective child, parenting, and child care

- factors in early elementary school years.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6(1), 79-113.
- Cha, M. H., Yang, J. K., & Chung, K. Y. (2006). Analysis to influence of risk factors and protective factors on adolescent's runaway behavior. *Studies on Juvenile Protection*, 15, 165-192.
- Chung, H. S. (2004). A basic study for developing "the marriage preparation program".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22(1), 91-101.
- Chung, H. W. (2009). The effects of life events on the onset of delinquency: Moderation of protective factors and risk facto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Chung, I. J., & Kim, S. W. (2011). The relationships between latent typologies in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terms of youth development. *Studies on Korean Youth*, 22(3), 197-230.
- Crnic, K., & Low, C. (2002). Everyday stresses and parenting. In M.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Practical issues in parenting* (2nd ed.) (pp. 243-267).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rnic, K. A.,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 Crnic, K. A., Gaze, C., & Hoffman, C. (2005). Cumulative parenting stress across the preschool period: Relations to maternal parenting and child behaviour at age 5.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4, 117-132.
- Cummings, M., Davies, P. T., & Campbell, S. B. (2001). Understanding the impact of marital conflict on children. *Brown University Child & Adolescent Behavior Letter*, 17(5), 1-4.
- Deater-Deckard, K., Dodge, K. A., Bates, J. E., & Pettit, G. S. (1998). Multiple risk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Group and individual differences.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10(3), 469-493.
- Duncan, G. J., & Brooks-Gunn, J. (1997). Incomes effects across the life span: Integration and interpretation. In G. J. Duncan, & J. Brooks-Gunn (Eds.), *Consequences of Growing Up Poor* (pp. 596-610).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Duncan, G. J., Yeung, W. J., Brooks-Gunn, J., & Smith, J. R. (1998). How much does childhood poverty affect the life chances of childre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3, 406-423.
- Fendrich, N., Wamer, B., & Weissman, M. M. (1990). Family risk factors, parental depression, and psychopathology in offspr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6, 40-50.
- Field, T., Healy, B., Goldstein, S., & Guthertz, M. (1990). Behavior-state matching and synchrony in mother-infant interactions of nondepressed versus depressed dyads. *Developmental Psychology*, 26, 7-14.
- Gutman, L. M., Sameroff, A. J., & Cole, R. (2003). Academic trajectories from first to twelfth grades: Growth curves according to multiple risk and early child factors. *Developmental Psychology*, 39, 777-790.
- Han, H. A., & Doh, H. S. (2008). The effects of family risk factors, ego-resilience and quality of peer relationships on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9(1), 87-101.

- Huh, K. H., Squires, J., Lee, S. Y., & Lee, J. S. (2006). *K-ASQ(Korean Ages & Stages Questionnaires) Parent-Rating Infant Monitoring System*. Seoul: Seoul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
- Ju, S. H. (2008). Cumulative risk and problem behavioral of divorced family's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26*, 61-86.
- Kessler, R. C., Andrew, G., Cople, L. J., Hiripi, E., Mroczek, D. K., Normand, S. L. T., Walters, E. E., & Zaslavsky, A. (2002). Short screening scales to monitor population prevalence and trends in nonspecific psychological distress. *Psychological Medicine, 32*(6), 959-976.
- Kim, H. M., & Doh, H. S. (2004). Maternal parenting stress, efficacy, and behavior: Relations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5*(6), 279-298.
- Kim, J. H., & Sung, J. H. (2013). The effects of marital conflict and mother's parent satisfaction and parenting behavior on preschoolers' emotional intelligenc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Development, 26*(7), 87-107.
- Kim, K. H., & Kang, H. K. (1997). Development of the Parenting Stress Scale.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5*(5), 141-150.
- Kim, S. H. (2012). An analysis of the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bullied children in elementary school. *Child Education, 21*(3), 5-17.
- Kim, S. K. (2006). Cumulative risk and delinquent behaviors of school adolesc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22*, 9-30.
- Kim, T. K. (2007). Risk factor and relationship of youth delinquency for family intimate moral moderating effect.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4*(2), 137-155.
- Kitzmann, K. M. (2000). Effects of marital conflict on subsequent triadic family interactions and parent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6*(1), 3-13.
- Lee, J. Y., & Chang, M. K. (2009).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depression and parenting behaviors: The mediating effects of irrational beliefs in parenting. *Cognitive Behavior Therapy in Korea, 9*(2), 1-16.
- Lengua, L. J., Bush, N., Long, A. C., Trancik, A. M., & Kovacs, E. A. (2008). Effortful control as a moderator of the relation between contextual risk and growth in adjustment problems. *Development & Psychopathology, 20*, 509-528.
- Lovejoy, M. C., Graczyk, P. A., O'Hare, E., & Heuman, G. (2000). Maternal depression and parenting behavior: A meta-analytic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0*, 561-592.
- Lyon-Ruth, K., Connell, D. B., Grunebaum, H. U., & Botein, S. (1990). Infants at social risk: Maternal depression and family support services as mediators of infant development and security of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61*(1), 85-98.
- Mann, M. B., & Thornberg, K. R. (1987). Guilt of working women with infants and toddlers in day care.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27*, 451-464.
- Markman, H., Stanley, S., & Blumberg, S. (2001). *Fighting for your marriage: Positive steps for*

- preventing divorce and preserving a lasting love, new & revised.*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
- Masten, A. S., Best, K. M., & Garnezy, N. (1990). Resilience and development: Contributions from the study of children who overcome adversit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 425-444.
- McCubbin, H., Patterson, J., & Wilson, L. (1982). FILE: 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 In D. Olson, H. I. McCubbin, H. Barnes, A. Larsen, M. Muxen, & M. Wilson (Eds.), *Family Inventories* (pp. 69-89). St. Paul, MN: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McLoyd, V. (1990). The impact of economic hardship on black families and children: Psychological distress, parenting,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1(2), 311-346.
- Mistry, R. S., Benner, A. D., Biesanz, J. C., Clark, S., & Howes, C. (2010). Family and social risk, and parental investments during the early childhood years as predictors of low income children's school readiness outcome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5, 432-449.
- Moon, M. J., Chung, J. H., Choi, J. S., Ahn, H. K., Ryu, H. M., Lim, H. J., Shin, J. S., Kim, J. O., Yang, J. H., Kim, M. Y., Choi, K. H., Kim, Y. J., & Han, J. Y. (2003). The rate of planned pregnancy and associated factors related to planned pregnancy. *Korean Journal of Obstetrics & Gynecology*, 46(9), 1741-1745.
-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1999). *NICHD Study of Early Child Care: Phase I Instrument Document*. Retrieved from <http://secc.rti.org/instdoc.doc>.
- Park, H. S. (1998). The school resilience of Korean adolescents in pover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J. H., & Chang, Y. A. (2004). The effect of parenting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social development among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s Rights*, 8(2), 327-353.
- Park, S. Y., Doh, H. S., & Chung, S. W. (1996). *Parent-Child Relationship: Ecological Approach*. Seoul: Hakjisa.
- Perkins, S. C., Finegood, E. D., & Swain, J. E. (2013). Poverty and language development: Roles of parenting and stress. *Innovations in Clinical Neuroscience*, 10(4), 10-19.
- Rauh, V. A., Parker, F. L., Garfinkel, R. S., Perry, J., & Andrew, H. F. (2003). Biological, social, and community influences on third-grade reading levels of minority Head Start children: A multilevel approach.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1(3), 255-278.
- Rouse, H. L., & Fantuzzo, J. W. (2009). Multiple risks and educational well being: A population-based investigation of threats to early school succes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4(1), 1-14.
- Rutter, M. (1979). Psychosoci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7, 316-331.
- Ryan, R. M., Fauth, R. C., & Brooks-Gunn, J. (2006). Childhood poverty: Implications for school readiness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 O. Sarachoc, & B. Spodek (Eds.), *Handbook of Research on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2nd ed., pp. 323-346). Mahwah, NJ: Erlbaum.
- Sameroff, A., Seifer, R., Zax, M., & Barocas, R. (1987). Early indicators of developmental risk: Rochester longitudinal study. *Schizophrenia Bulletin*, 13, 383-394.
- Sameroff, A., Seifer, R., Baldwin, A., & Baldwin, C. (1993). Stability of intelligence from preschool to adolescence: The influence of social and family risk factors. *Child Development*, 64, 80-97.
- Sameroff, A. J., Seifer, R., Barocas, R., Zax, M., & Greenspan, S. (1987). Intelligence quotient scores of 4-year-old children: Social-environmental risk factors. *Pediatrics*, 79, 343-350.
- Santrok, J. W. (2012). *Child Development: An Introduction*, (13th ed.). McGraw Hill. New York: NY.
- Shin, S. J., & Chung, M. J. (1998). Effects of stress, social support and efficacy on mothers' parenting behavior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19(1), 27-42.
- Sung, M. Y., & Seol, K. O. (2012). Protective and risk factors of behavior problems among children in institutional care in Korea. *Child Education*, 21(2), 147-160.
- West, J., Denton, K., & Germino-Hausken, E. (2000). America's Kindergartners. Findings From the Early Childhood Longitudinal Study, Kindergarten Class of 1998-1999, Fall 1998. NCES 2000-070. Washington, DC: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Retrieved from <http://nces.edu.gov/pubs2000/200070.pdf>.

Received November 18, 2013

Revision Received February 16, 2014

Accepted April 14, 2014